



히 살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이 실장은 선박투자회사 인가시 용선주인 해운 선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항목에 추가하는 등 신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끼쳤

을 때 선박운용회사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선박투자회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.

## 항만경쟁력 강화 범정부 협의체 구성

### '부산·광양항경쟁력강화위원회' 발족

#### 위원회 산하에 3개 실무기획단 운영

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 된다.

정부는 2월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현재 경제부총리 주제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항만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'부산·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'를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.

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정경제부·건설교통부·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철도공사·지자체·경제자유구역청·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을 망라해 구성된다.

위원회는 항만 인프라 조기확충과 항만물류산업 발전 등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. 특히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배후철도의 조기 완공 및 광양항 배후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 방안, 항만 배후부지 조기 조성 및 기존 배후부지 중 물류부지 확대 필요성 등 민감한 사안도 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.

또 항만과 배후부지의 각종 유치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은 물론 민간의 하역장비 확충의욕 제고와 항만 물류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정

부지원 등 항만운영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.

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부산·광양항의 항만시설과 배후수송망 등의 조기 구축을 검토하는 '부산·광양항 건설기획단', 광양항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물동량 창출기반 조성 및 물류지원시설 확충을 담당할 '광양항 활성화 기획단', 올해말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와 조기 활성화를 지원할 '부산신항 개장준비 및 활성화 기획단' 등 3개의 실무기획단을 두게 된다.

각 기획단별로 논의된 사안은 즉시 위원회에 상정돼 합의가 도출되며 합의사항은 경제장관간담회 등에 수시로 상정돼 국가계획으로 확정짓게 된다.

위원회는 각 실무기획단별로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추진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,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6~7월경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이러한 대내외적 우려를 씻고 우리 항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유용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